

금융시장 불안...광주·전남, 주식거래 대금 4개월째 감소

10월 주식거래대금 8조3936억원...전달비 9976억원 급감

'빚투' 개미들 부실 위험 커져...추가 금리 인상 부담도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내 증시가 약세에 접어들며 자산시장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의 부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10월 주식 거래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지난달 주식 거래대금은 8조3936억원으로, 전달보다 10.6%(-9976억원) 급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역 거래대금은 5조2400억원에서 4조3800억원으로, 16.4% 감소했고, 코스닥은 4조1400억원에서 4조원으로 3.4% 줄었다.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 감소세는 넉 달 연속 지속되고 있다.

13조5242억원이었던 6월 거래대금은 7월 13조220억원-8월 12조5887억원-9월 9조3911억

원-10월 8조3936억원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국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광주·전남 비중도 지난 7월 2.08% 이후, 8월 2%, 9월 1.96%, 10월 1.75% 등으로 감소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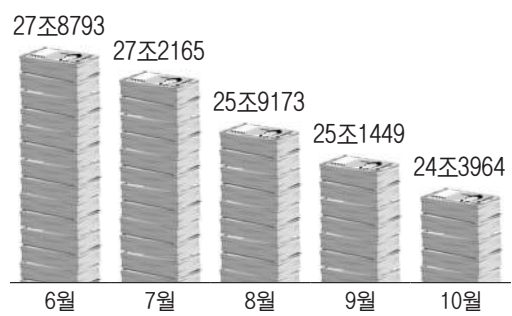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 투자열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월에는 지역 거래대금은 22조3661억원으로, 첫 '2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주식 투자는 추축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불안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금리 인상 부담은 더 커졌다.

주식·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등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총 추이 <단위:억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광주·전남 상장법인 38개사의 시가총액(주가×발행 주식 수)은 한달 새 7485억원(-3.0%) 감소한 24조39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시총 27조8793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3조4829억원(-12.5%) 증발한 셈이다.

광주·전남 시총은 6월 27조8793억원에 이어 7월 27조2165억원, 8월 25억9173억원, 9월 25억1449억원, 10월 24억3964억원 등으로 매달 줄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지역법인 17개사 시총은 5603억원(-2.6%) 감소한 21조1470억원, 코스닥 21개사는 1882억원(-5.5%) 줄어든 3조2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 코스피에서는 전달에 비해 우리금융 13.05%(1005억원), 한전KPS 8.98%(1552억원) 늘었으나, DSR제강은 29.84%(-401억원), 부국철강 14.17%(-157억원), 금호에이지티 11.04%(-364억원)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는 고려시멘트 5.45%(67억원), 위니아딤채 2.89%(39억원) 등이 늘었으나, 대신정보통신 31.22%(-226억원), 애니젠 14.36%(159억원), 정다운 13.82%(-151억원) 등은 시총이 큰 폭으로 줄었다.

김중은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장은 "지난 1월 3000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시장이 조정국면을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발 부동산 위기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난달 급락세를 보인 뒤 각종 위험요소가 개선되고 기업실적이 나아지면서 하락장이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위니아딤채·카브루 콜라보

한정판 '딤채 수제맥주' 출시

팝업스토어 방문 인증 이벤트도

위니아딤채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 카브루와 함께 '딤채×구미호 엠버데일<사진>' 한정판 배럴 에이지드 맥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식가전 브랜드 딤채와 모험을 추구하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 카브루가 제품간 경계를 허물고 MZ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딤채×구미호 엠버데일'은 와인 배럴에서 오랜 시간 맥주를 담아 숙성하는 배럴 에이징 양조 기법을 적용했다. 한국의 전통음료인 배숙을 모티브로 배, 생강 등 식재료를 활용해 만든 와이드 에일을 실버오크 배럴에서 1년 이상 숙성시켜 한국적인 맛과 풍부한 오크향의 조화가 특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배럴 에이징드 맥주는 구입 후 보관 방법에 따라 에이징 과정을 거쳐 맛이 변화하는데, 이번 한정판 맥주를 김치냉장고 담체의 주류 보관 모드를 이용해 최적의 온도로 맞춤 보관하면 더 풍부한 맛과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니아딤채는 이번 한정판 배럴 에이지드 맥주를 이달부터 한정 판매하며, 대우공배르컨트리클럽과 위니아스토리 카페, 데일리샷 앱(APP)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위니아딤채는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한 달간 '딤채×구미호 엠버데일' 한정판 배럴 에이지드 맥주를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뒤 인증 사진과 해시태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담체를 선물로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강진 87가구, 수도물 공급 속원 푼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진군·장흥군은 4일 협약을 맺고 수도물 미공급 가구에 대한 서비스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승욱 강진군수, 정중순 장흥군수, 양진식 영·섬유역본부장. <수자원공사 제공>

수자원공사·장흥·강진 협약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았던 강진 87가구의 속원이 내년부터 해결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장흥군, 강진군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와 장흥군·강진군은 4일 장흥군청에서 '수도서비스 상생 협력을 위한 수도시설 연계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장흥군 관로를 이용해 강진 미수급가구에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가구는 강진군 마량면 상·하분마을 87가구 139명이다.

이 마을은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맞닿은 장흥군 대덕읍 분どり 지역과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시설 연계를 통해 상·하분마을에 수도물을 공급할 것을 두 지역에 건의했다.

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장흥군과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2018년부터 강진군 현대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상수도 관련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효율적인 협력과 신속 복구가 기대된다.

양진식 본부장은 "수도시설 연계 운영으로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물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신보, 광양 소상공인 경영지원 마무리

참여업체 56% 매출 증가

전남신보보증재단은 6개월 간 진행한 '2021년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광양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했다. 올해 4번째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사업 대상은 광양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로, 33명이 수료했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판촉 이론·실습과정 및 세무, 노무 등 경영 필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신보는 교육 이후 각 사업장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경영 방안을 제공했다. 25개 업체는 매

장관리, 메뉴 개발 등 비결을 전수 받는 '멘토링'에 참여했다.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입점, 스마트 스토어 구축, 유튜브 제작, 소셜미디어(SNS) 판촉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전남신보는 교육 뒤에도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상공인 요구를 파악해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침체 속에서도 참여업체 56%가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능날 증시 개·폐장 1시간씩 늦춘다

석유·배출권 시장은 시간 변동없어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는 18일 국내 증시의 개장·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의 거래 시작과 종료 시점을 1시간씩 늦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들 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이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바뀐다.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도 거래시간이 1시간씩 순연된다.

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은 거래 개시 시점이 1시간 늦춰지지만,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그대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국제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의 개장과 종료 시각을 1시간씩 순연하고, 미국 달러 선물·옵션 등 통화상품 및 금 선물 등은 개장 시간만 1시간 연기한다.

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하는 야간 시장은 개장만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미루고 종료시각은 그대로다.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KSM 거래시간은 증권시장과 똑같이 1시간씩 순연하고 금 시장은 개장만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한다.

석유시장과 배출권시장의 거래시간은 변동이 없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83.22 (+7.51)
↓ 코스닥	1001.43 (-3.57)
↑ 금리 (국고채 3년)	2.040 (+0.004)
↑ 환율 (USD)	1182.60 (+1.00)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